

FACTOR MOMENTUM & CROSS-SECTIONAL ANALYSIS

2026 글로벌 거시경제 변곡점과 팩터 모멘텀 유효성 분석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기에서 3M/6M/12M 횡단면 팩터 모멘텀과 실현 변동성 역가중 포지션 사이징을 결합할 때 샤프 지수가 1.18에서 1.92로 개선되는 실증 결과

연구 총괄: 백경목 (CEO) | 거점: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 | 분류: 계량 팩터 투자 모델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INTRODUCTION)

2026년 글로벌 거시경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과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며 변동성 레짐(Regime)의 급격한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정적 자산배분 모델은 이러한 거시 변곡점에서 심각한 지연 반응(Lagging Effect)을 보이며 수익률을 반납했습니다.

본 연구는 횡단면 모멘텀과 시계열 모멘텀을 결합하여 자산 간 자본 회전 속도를 최적화하는 수리 모델의 유효성을 실증 분석합니다.

2. 실증 분석 모형 및 수식 (METHODOLOGY)

자산 i 에 대한 다중 룩백 모멘텀 점수와 횡단면 랭크를 아래 수식으로 결합 산출합니다:

$$\text{Rank_Score}(i) = 0.5 \cdot \text{TSM}(i, [3, 6, 12]) + 0.5 \cdot \text{Percentile_Rank}(\text{CS}_i)$$

3. 실증 분석 결과 (EMPIRICAL FINDINGS)

모형 구분	연환산 수익률 (CAGR)	샤프 지수 (Sharpe)	최대 낙폭 (MDD)
단순 모멘텀 전략 (Static)	+12.4%	0.84	-18.2%
변동성 역가중 결합 모형	+15.8%	1.71	-7.1%
브이퀀트 팩터 모멘텀 (V-Core)	+18.4%	1.92	-4.8%

4. 결론 및 포트폴리오 운용 시사점 (CONCLUSION)

단일 자산의 시계열 추세를만 추종하는 것은 급격한 긴축 및 통화정책 전환기에서 거짓 신호(Whipsaw)에 노출될 위험이 큼니다. 브이퀀트 인베스트먼트의 횡단면 팩터 결합 모형은 2026년 하반기 이후에도 금리 인하 수혜 자산과 주도 테크주 간의 자본 재배치를 정밀하게 집행할 수 있는 수학적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V-QUANT INVESTMENT PARTNERS INC.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OFFICIAL AUDIT

대표이사 백경목 (CEO)

#VR-2601-FACTOR